

토론회

앞서, 토론회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토론회를 통해 경험을 나누는 자리가 되어 뜻 깊은 시작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박경신 교수님, 오경미 연구자님 그리고 안드라 마테이, 양홍석, 강태리 변호사님께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여해주신 여러 인사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저의 발표주제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입니다.

이것은 저의 가치관에 대한 시작이자 색채와 심리 그리고 5가지의 오감이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론을 들어가기 전에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머니의 품에서 태어나기 전부터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성장 과정 모두가 다릅니다. 그 다르다는 것은 상대적인 시각과 본질의 차이 경험이 다르다는 말을 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저는 앞서 말한 내용과 같이 모두가 상대적 입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의 차이의 기준이 다른 것처럼 사랑하는 이성에게서도 같은 것을 느끼고 사랑하는 것 같지만 다른 것처럼 말이죠. 즉, 이해의 범위와 경험은 다르다는 것 입니다.

그런 저의 상대적인 시각차이 그리고 경험은 한국인 5천만명 중에 1명 정태용은 다른 것 입니다.

어릴 적 글 일기를 쓰기보단 그림 일기장을 좋아했고 구체적인 계획보다는 몸소 실천하는 것 이 였습니다. 이러하듯 굉장히 감성적 입니다. 그래서 빗 말, 농담 에도 상처가 되기 쉬웠죠

제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단, 한가지 지켜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아이처럼 좋고 싫다. 할 수 있는 순수함 입니다. 그래야 온전히 표현이 되어지는 것이죠. 베를린 장벽은 때문지 않은 순수 함 입니다. 온전히 저의 모든 것을 걸었던 야망이자. 모든 꿈과 희망 이었던 것이죠.

-

핵심적인 질문 한 가지를 해보려고 합니다. 당신에게 진정 한국에 있는 베를린 장벽이 당신에게 어떤 신념으로부터 직접적, 상징적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저 먼저 대답을 해보겠습니다.

저의 필명 히드아이즈는 어두운 과거의 해방이자. 인생의 탈출구 입니다. 현대인들의 성장은 저 또한 성장하는 시간의 경험, 아픔을 겪은 시간이 다름 뿐 소통의 공통점이라 생각이 들었고, 색채 심리학을 공부하고 작품으로 위로하는 작가로 성장 해야겠다. 하여 지난 6년을 이어 진행형인 히드아이즈가 된 것이죠.

이러 하듯 베를린 장벽은 눈에 보이지 않은 것. 태극기의 그 의미 자체로써 그 뜻을 다하였습니다. 언젠가 다 지워져 없어져 버릴 그림을 강제적으로 그 흔적 파괴하고 또 파괴 하였습니다. 모든 시작과 끝은 저의 선택 아래 스스로 하였습니다. 아픔을 표현 하였지만 그 아픔은 새로운 아픔을 낳았고 그 새로운 아픔은 저 스스로가 품었습니다.

이는 잘못을 했다 안 했다. 그게 무슨 뜻이 그 뜻이냐 라는 1차원 적인 이야기 따지고 얘기 하고 싶진 않습니다.

제가 낳은 싹을 제가 잘라낸 건 작가로써 작품을 작품으로 보지 않는. 작품을 사람으로 보았던 것이죠. 저는 지난 과거의 저를 지우고 죽였습니다. 예술... 예술이란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든 생산품과 생산물은 사람이 낳은 창작물 모두 예술인 것이죠. 사람도 마찬가지 이죠.

-

그럼 예술의 기준이 무엇 입니까?

허용된 법의 테두리에서 하는 것만의 예술의 기준이 인정 되는 것이라면 오베이, 케니 샤프, 바스 키아, 키스헤링, 뱅크시는 예술의 기준이 인정 되지 않아 사랑을 못 받았을 테죠. 과정이 있기에 그들은 존재 하는 것 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인물도 있습니다.

그라피티는 강력하게 소통하는 방법의 장르인 것이죠. 저는 그런 그라피티가 좋은 것입니다.

저의 작업으로 대수롭지 않게 지나치던 장벽은 한 순간에 조명을 받기 시작했죠. 모든 가치와 가치관, 사정성이 부여 되어 의미있는 작업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굳이 저의 이름을 밝힌 것이죠. 저는 그 상반된 입장을 모두 헤아리고 있었고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고민하였습니다.

브롱스에서 시작된 이런 그라피티를 예술이라고 받아들이는데 까지. 많은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러하듯 저는 부정적인 것을 긍정의 변화를 가져다 주어 성장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 입니다. 단순히 평화만을 위한 작업이 아니었던 것이죠. 아픔입니다.

위험을 감수 하면서 까지 저의 표현의 자유란 먼 미래를 위한 한국 문화예술발전의 생산적 투자였습니다. 받아 들이냐 못 받아 들이는 것은 제가 선택할 것은 아니죠. 저는 생산자 입니다.

베를린 장벽의 그라피티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선택의 고민은 저 히드아이즈의 가치관에서 결정 된 것이지.. 선택의 기준을 대중과 법으로 따지지 않았던 것이죠. 오로지 저의 가치관에서 결정 하였습니다.

끝. 이상입니다.